

2018년 6월 29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어 상승 FANG과 금융주 상승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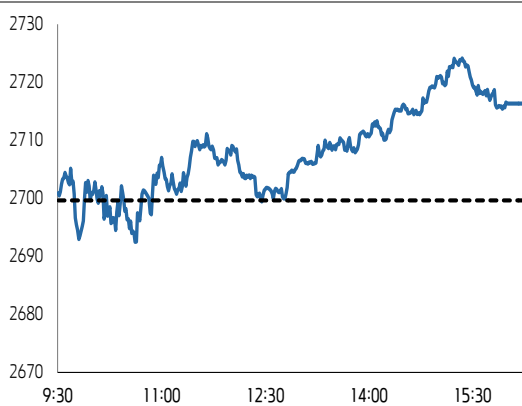
미 증시 상승 요인

유럽증시는 중국이 미국의 대두 수입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결과. 아디다스(-2.70%), BMW(-1.34%) 등 수출주가 하락 주도. 미 증시는 무역분쟁 이슈가 발목을 잡으며 하락 출발 했으나, 금융주가 연준의 2 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기대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 더불어 투자이견이 상향 조정 된 알파벳과 온라인 약국 인수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아마존 등 'FANG'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자 미 증시는 상승 확대(다우 +0.41%, 나스닥 +0.79%, S&P500 +0.62%, 러셀 2000 +0.28%)

미 증시는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어 상승. 특히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하지만, 아마존과 금융주 등이 상승한 데 따른 결과. 아마존은 새로운 물류 서비스 제공 및 온라인 약국인 필팩을 인수한다고 발표 후 상승. 아마존은 프리미엄 고객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 서비스 파트너' 규정을 발표하며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 다만, 미국의 물류회사들은 매출 둔화 우려감속에 하락. 한편, 아마존은 온라인 약국인 필팩을 10 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 아마존은 필팩을 인수함으로써 제약 라이선스를 가지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약국산업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아마존에는 우호적. 다만, 월그린부츠를 비롯한 약국 체인점과 일부 헬스케어 업종 하락요인.

한편, 금융주 또한 2% 내외 상승. 장 마감 후 발표되는 2 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자신감에 따른 결과. 특히 연준은 2 차 테스트에서는 은행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리스크 관리를 비롯 내부 통제를 점검. 2 차 테스트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점은 금융주의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이러한 아마존과 금융주의 특징은 실적 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음.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하지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관련 기업들의 상승과 미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반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종가	D-1	지수	종가	D-1
KOSPI	2,314.24	-1.19	홍콩항셱	28,497.32	+0.50
KOSDAQ	810.20	-1.99	영국	7,615.63	-0.08
DOW	24,216.05	+0.41	독일	12,177.23	-1.39
NASDAQ	7,503.68	+0.79	프랑스	5,275.64	-0.97
S&P 500	2,716.31	+0.62	스페인	9,589.00	-0.72
상하이종합	2,786.90	-0.93	그리스	748.03	-2.59
일본	22,270.39	-0.01	이탈리아	21,432.34	-0.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강세

JP모건(+1.64%), BOA(+1.52%), 씨티그룹(+2.17%), 골드만삭스(+1.47%) 등 금융주는 연준의 2차 스트레스테스트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특히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이 상승 요인이었다. 엑센추어(+5.90%)는 양호한 실적 발표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IBM(+1.86%)도 동반 상승했다. 마이크론(+1.68%), 인텔(+1.00%) 등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알파벳(+0.88%)은 투자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아마존(+2.47%)은 온라인 약국인 필팬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반면,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약국 체인점인 월그린부츠(-9.90%)를 비롯해 매케슨(-6.12%), 카디날 헬스(-4.84%) 등 약국 체인점들은 하락 했다. 또한 CVS헬스(-6.10%), 익스프레스 스크립트(-1.42%), 라이트 에이드(-11.11%) 등도 동반 하락 했다. 여기에 아마존이 자신만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자 UPS(-2.31%), 페덱스(-1.34%) 등 물류회사들이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30%	대형 가치주 ETF	+0.41%
에너지섹터 ETF	-0.34%	중형 가치주 ETF	+0.36%
소매업체 ETF	+0.02%	소형 가치주 ETF	+0.02%
금융섹터 ETF	+0.87%	배당주 ETF	+0.27%
기술섹터 ETF	+1.22%	변동성 ETF	-1.37%
소셜 미디어업체 ETF	+1.02%	대형 성장주 ETF	+0.86%
인터넷업체 ETF	+1.46%	중형 성장주 ETF	+0.76%
리츠업체 ETF	+0.99%	소형 성장주 ETF	+0.52%
주택건설업체 ETF	0.00%	신중국 고배당 ETF	+0.74%
바이오섹터 ETF	+0.57%	신중국 저변동성 ETF	+0.26%
헬스케어 ETF	+0.13%	하이일드 ETF	-0.36%
곡물 ETF	+0.06%	물가연동채 ETF	-0.13%
반도체 ETF	+1.01%	Long/short ETF	+1.1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7.93	-0.12%	+2.59%	-0.08%
소재	362.82	+0.44%	+0.33%	-0.11%
산업재	600.89	+0.16%	-1.28%	-3.62%
경기소비재	868.77	+0.76%	-2.17%	+3.33%
필수소비재	529.85	+0.17%	+0.74%	+4.30%
헬스케어	964.33	+0.17%	-1.52%	+1.35%
금융	441.71	+0.86%	-2.33%	-1.89%
IT	1,218.54	+1.08%	-2.57%	-0.40%
통신	149.05	+2.29%	+3.06%	+2.89%
유틸리티	263.22	-0.02%	+2.97%	+2.43%
부동산	201.58	+0.86%	+1.69%	+3.7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이익 개선 기대 종목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13% MSCI 신흥 지수도 0.85%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도(-1,299 계약)에도 불구하고 0.70pt 상승한 299.8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20.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힘입어 상승 했다. 특히 오늘 나온 이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는 여전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국뿐 아니라 한국 증시의 특징 중 하나다.

지난 3 월말 대비 2 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폭이 컸던 업종은 KOSPI 200 기준 IT 가전(72.1%), 은행(70.1%), 보험(57.9%), 기계(52.4%), 화장품·의류·완구(50.9%), 증권(46.1%) 업종 등이다. 일부 업종은 개별적인 이슈에 의한 일시적인 상향 조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 되는 업종이 많아지는 경향이다.

여기에 KOSPI 12 개월 FWD PER(6/27 기준)이 8.68 배, PBR 도 0.94 배에 그치는 등 펀더멘탈도 양호하다. 이를 감안 무역분쟁에 의한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해도 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애틀란타 연은, 2 분기 GDP 성장률 4.5% 증가 전망

미국 1 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수정치(2.2%) 보다 하향 조정 된 2.0%로 발표되었다. 소비지출이 부진하고 재고 또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결과다. 그러나 애틀란타 연은의 GDPNow 에 따르면 2 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4.5%, 뉴욕연은의 Nowcasting 에 따르면 2.87%로 전망 되고 있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1 만 8 천건) 보다 증가한 22 만 7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4 주 평균 청구건수도 지난주(22 만 1 천건) 보다 증가한 22 만 2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6 월 캔자스시티 연은 지수는 지난달(29) 보다 소폭 하향 조정 된 28 로 발표되었다. 다만 시장 예상치(27) 보다는 상승 했다. 생산 지수가 전월(41) 보다 둔화된 38 로 발표되었으나 기대지수는 전월(32) 보다 크게 개선 된 53 으로 발표된 점이 특징이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는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 따른 공급 부족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한편, 미 국무부 일부 관계자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대해 예외가 없다는 기존의 발표와 달리 이란 원유 수입을 줄이는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일부 완화된 발언을 하자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인도가 자국의 정유사들에게 이란 이외의 수입국을 찾으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차 상승했다.

달러지수는 무역분쟁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가 부각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EU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난민문제, 무역분쟁, 브렉시트, 유로존 개혁 등에 대한 기대에 힘입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한편, 파운드화는 브렉시트 논의를 앞두고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지속되었으나 대체로 안정을 찾으며 상승 했다. 특히 미국의 2 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된 결과다. 다만,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 때 하락하기도 했다. 한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향후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금리인상을 뒤로 미룰 수 있다” 라고 주장 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향후 이로 인해 경기 하강 움직임을 촉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 했으나,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했다.

금은 달러 약세폭이 축소되자 하락 했다. 구리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취소하는 등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자 하락 했다. 여타 비철금속도 동반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39%, 철근도 0.78%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73.45	+0.95	+12.07	Dollar Index	95.316	+0.03	+0.48
브렌트유	77.85	+0.30	+6.57	EUR/USD	1.1563	+0.08	-0.35
금	1,251.00	-0.41	-1.53	USD/JPY	110.52	+0.24	+0.48
은	16.041	-1.21	-2.21	GBP/USD	1.3075	-0.29	-1.25
알루미늄	2,155.00	-0.97	-1.10	USD/CHF	0.9977	+0.04	+0.54
전기동	6,623.00	-1.04	-2.40	AUD/USD	0.7349	+0.12	-0.41
아연	2,897.00	+0.73	-0.72	USD/CAD	1.3270	-0.54	-0.34
옥수수	366.00	-1.94	-3.24	USD/BRL	3.8617	+0.02	+2.48
밀	483.50	-1.02	-4.59	USD/CNH	6.6396	+0.33	+2.15
대두	883.50	-0.62	-2.00	USD/KRW	1124.20	+0.59	+1.02
커피	115.75	-1.45	-0.43	USD/KRW NDF1M	1120.95	-0.16	+1.05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40	+1.45	-5.66	스페인	1.361	+1.10	+3.00
한국	2.560	-1.50	-3.50	포르투갈	1.820	-1.30	-1.20
일본	0.036	-0.30	-0.40	그리스	4.017	+1.30	-26.20
독일	0.319	-0.20	-1.60	이탈리아	2.776	-2.90	+5.20